

정개특위 지지부진... 여론 눈치보기?

소액 후원금·지구당 부활 등 '5대 쟁점' 논란속 2차회의 정족수도 못 채우고 11분 만에 산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위원장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가 22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전체 20명의 위원 중 8명만이 출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정개특위 시한이 8월 17일인 만큼 다음달 중으로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공청회 계획서만 처리하고 11분 만에 산회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기춘 의원은 "이날 회의의 일정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김정훈 의원)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의사일정 결정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정개특위의 시한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에는 '정치권의 여론 눈치보기'가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기습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사실상의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만큼 우선은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에서는 ▲소액후원금제 등 정치자금제도 개선 ▲지구당 부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 재조정 ▲선거법 처벌 조항 등이 '5대 쟁점'으로 꼽힌다.

정치자금제도 개선은 여야 행안위 원이 합심해 통과시킬 정도로 국회의

원들이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사안이다. 작년 말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수사로 인해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소액후원금을 받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가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정자법 개정안이 '입법로비 합법화'란 비난을 받은 만큼 상황이 그다지 녹록치는 않다.

지구당 부활도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현행 지역위원회 형태로는 조직 활동이 어려운 만큼 합법적으로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지구당 부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과거 돈·조직 선거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구 재조정 문제는 일부 특위위원이 '이해 당사자'여서 합리적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합구 대상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합구가 불발되고 지역구 수만 늘어날 경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여야가 추진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2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신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야권 하나돼야" 유 "큰 리더십 기대"

유시민 대표 취임 인사차 손학규 대표 찾아... 재보선 언급 안해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22일 만났다. 유 대표가 취임 인사차 손 대표를 찾은 것이다.

두 대표는 30여분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우리는 하나다"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며 정권교체를 위한 서로 역할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민주당 차영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손 대표는 이날 "유 대표가 국민참여당의 대표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

니까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 기대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년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주셔야 한다. 야권 민주세력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노력을 보여 줄 때 거기서 국민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유 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대표는 "열심히 잘하겠다"

며 "손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야당을 잘 보듬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잘 타개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유 대표가 자리를 뜨면서 손 대표에게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손 대표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가 미안하지"라고 유 대표를 포옹하면서 두 사람은 잠깐 부둥켜 안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상황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두 사람 모두 재보선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 감해를 단일화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은 손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 뒤, 배석한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김 국장은 아주 훌륭한 인재"라며 "기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국장은 민주당 내 친노세력의 설득으로 감해를 출마를 고심했으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측의 강력한 반발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권 여사가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화순 재선거도 뜨거워진다

예비후보 등록 줄이어... 야3당·무소속 다자 구도

4·27 화순군수 재선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 3당 후보들이 모두 나설 예정인데다 임호경 전 군수 등 민주당 경선을 포기한 무소속 후보들도 줄줄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화순군수 재선거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호경(59) 전 화순군수와 최만원(45) 진보신당 전남도당(준)위원장 등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이날 현재 총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배동기(55) 전 화순부군수 혼자이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무소속 예비후보는 민병홍(51·전 전남도교육위원)·임호환(66·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에 이어 임 전 군수가 가세하면서 3명으로 늘었다.

또한, 이날 진보신당도 후보를 내면서 4·27 화순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 간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호남 끌어안기' 박차

오늘 전북서 지도부 참석 최고위 개최

한나라당이 '호남 끌어안기'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3일 전북 전주에서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6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호남지역에서 두 번째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부의 개

발계획이 최근 확정된 새만금 개발 문제를 비롯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태권도 공원 등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호남발전특위(위원장 정운천 최고위원)를

전 군수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이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또 한 번의 '집안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향준 전 화순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전 전 군수의 1심 선고는 23일 예정돼 있다. 특히 전 전 군수도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화순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임근기 화순부군수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김형래(54·동북농협장), 구충근(51·전남도립대 총장), 홍이식(53) 전남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시의회, 위원회 참여 대폭 축소

광주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그동안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97개 위원회의 참여근거와 기능 등을 검토해 45개 위원회만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6대 의회 출범 후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의원들의 무분별한 위원회 참여에 제동을 건데 따른 것이다.

광주선관위, 한나라당 핵심당원 연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상철)는 22일 담양리조트 송광사에서 한나라당 광주시당 핵심당원 70여명을 대상으로 '핵심당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당원들의 정치관계법의 이해를 통한 준비 선거분위기 조성고 당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 위원회 참여 대폭 축소

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의무급식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된다.

광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연 시의원(민노·비례)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석순 광주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김형근 울산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장 공동 발제로 진행된다. 전주연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민주, 목포시의원 23~25일 후보등록

민주당 전남도당은 4·27 목포시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 방식을 오는 27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후보 등록은 23~25일까지이며, 후보경선 방식은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4·27 보궐선거 목포시의원 라 선거구(유대·만호·북원·동명동) 경선방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식당용 증고품

- 매매전문 -

**입소
용품**

**주방
용품**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증고매장

직통 011-9430-1698

양동 1
전대사거리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전대명문1

침단점 062) 945-8778

얼마 전 우리나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암의 사망 원인의 1위이며,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한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 각종 발암물질로 뒤덮여 있으며 학계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매스컴에서 암은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것과 후천적으로 오래된 잘못된 식생활습관이나 각종환경에 기인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암의 공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게,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항상 내가 암은 아닌가 하고 염려한다. 하지만 암은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이 진행된 되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얼마 안 가서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뒷받침 될 경우엔 오랜 기간 방사선 항암치료 및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평생 온 가족이 같이 매달려 살지만 그렇기 않은 경우엔 치료비 감당을 못하여 그만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학계에 알려진 암의 발생과정은 살펴보면 암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여러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 속 DNA가 손상을 입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암의 시작이다.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 늘어나면 종양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악성종양이 된다. 돌연변이가 된 세포가 증식하는 가운데서 종양이 생겨나게 되는데 돌연변이 세포가 암 덩어리가 되기까지 통상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 분석연구를 통해 선천적 후천적인 암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기법은 주로 대형 암 전문병원에서 고가인 300만~3000만 원으로 검사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검사였다.

하지만 진스토리에서는 벤처기업 다이오진이 개발하여 등록 된 첨단기법인 암유전자분석 (다이오진 CG Check: 헬싱DNA 총량검사, 유전자 메틸화 검사,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및 추가 DNA 검사를 간단한 채혈만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암유전자분석검사를 통해 암 유전자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CT나 MRI 등의 현 첨단기기가 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현 기술로 1Cm

의 암이 되어야 파악이 가능하여 일부 전이가 되어진 상태에서 발견) 생성 초기의 암 발견으로 사전에 치유 가능케 하고 암 억제 유전자의 복구를 통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생생이나 운동 및 건강한 생활을 통해 몸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를 통해 건강하고 자신 하던 분들에게서도 선종성 용종, 미세암 또는 초기암이 발견, 제거하여 새롭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들이 늘어 나고 있다. 이 진스토리 암유전자 조기 검사는 이미 암으로 형성 된 것을 발견하기 보다는 암으로 형성 되기 전의 상태를 파악 해 주어 암을 사전에 차단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임환자가 계시면 분, 암 치료 후 재발을 두려워하시는 분, 환경호르몬에 노출 되신 분,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 용종이나 선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꼭 받아 보아야 할 검사가 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건강 과 부모님께 건강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곧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인들의 종합검진과 아울러 필수적인 암 유전자 검사로 자리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스토리에서는 이 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컨설팅 할 GSC(진스토리 컨설턴트)도 모집한다.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로 암 공포에서 해방되세요!

(주)진스토리 | 문의전화: 062-385-2212~3 www.genestory.kr
광주광역시 서구 마곡동 172-1 3층